

CCTV 영상처리·분석 똑똑해진다… AI 반도체칩 국산화 추진

과기부, 3세대 시스템온칩 개발 박차
현재 국내 기업 외산 의존도 높아

KT, 국산 NPU AI 엠티박스 개발
한화비전, 자체 개발 신제품 선보

국내 영상보안 시장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인공지능(AI) 관제 체계로 전환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정부의 AICCTV 전환 정책과 영상 관제 효율성을 위한 시장의 AI 도입 확대 움직임이 맞물리며 관련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4년 간 총 비용 45 억원을 투입해 AICCTV 핵심 부품인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 지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능형 CCTV 산업 육성에 따라 3세대 시스템온칩(SoC) 개발에 나선 것이다. CCTV 내부에서 영상처리와 AI 분석을 수행하는 핵심 반도체를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AI CCTV 엠티박스가 설치된 모습을 구현한 이미지.

공공 부문에서도 AI CCTV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경상남도과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산 NPU에 기반한 AICCTV 전환 사업을 실시한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AI CCTV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보안 강화와 현장 관제 효율성 확보 때문이다. 공공 부문에서 영

상 관제는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산업으로 국내 공급망 확보가 필수다. 그러나 현재 영상보안용 SoC 시장은 미국·중국·대만 등 해외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외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24시간 작동하는 CCTV를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영상을 직접 확

인하고 조치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했다.

특히 CCTV가 늘어날수록 유지비가 문제다. 관제 서버로 전달되는 영상 정보가 많아질수록 서버에 필요한 AI 가속기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부 채널을 선택해 분석하는 등 상황이 발생했다.

AICCTV 전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카메라 내부에 AI 연산 기능을 갖춘 SoC를 탑재하는 방식이다. 모든 영상을 중앙 관제 서버로 보내 분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서버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탐지 결과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존 CCTV와 관제센터 사이에 AI 칩이 탑재된 엠티박스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일반 CCTV가 촬영한 영상을 엠티박스가 받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구조다. 이미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기업들도 기존 CCTV의 AI 전환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KT는 최근 AI 반

도체 팹리스 기업 딥엑스, 영상보안 기업 세솔과 함께 국산 NPU를 활용해 AI 엠티박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KT는 기술 검증이 완료되면 해당 디바이스의 공공 시장 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비전은 올해 자체 개발한 와이즈넷 9 집과 듀얼 NPU를 탑재한 AICCTV 신제품을 출시했다. 중앙 관제 서버의 저장 부담을 줄인 게 특징이다. 딥엑스·모빌린트·리벨리온 등 국내 AI 반도체 기업도 정부 사업 수주를 통해 CCTV 관제센터와 엠티 장비에서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는 영상 분석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 2024년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CCTV 관련 수출 규모를 2022년 1조6000억원에서 2027년 3조원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KT, 내달 7일까지 ‘AI 능숙’ 신입사원 모집

NW인프라운용 등 핵심 직무

채용 규모 2배 확대… 인력 강화

KT가 오는 7일까지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고객·사업 현장 등 핵심 직무를 지난해보다 2배 확대했다.

25일 KT에 따르면 이번 대졸 신입사원 채용의 모집 분야는 ▲NW인프라운용 ▲B2B컨설팅&세일즈 ▲B2C마케팅&세일즈 등이다.

이들 분야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기업·개인 고객 요구를 파악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하는 직무다. 이들 분야에서 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확대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평가 요소는 직무별 특성에 따라 실제 업무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문제해결 역량 등을 중심으로 지원자 직무 수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평가 요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제 해결 방식이다. 직무 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선발 과정에서 KT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업무 방식·태도 등을 함께

살펴본다.

다만, 역량에 관해서는 스펙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원자가 처했던 상황과 역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와 결과 도출 등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과정에서 발휘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입사 후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직무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직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역량을 함께 키워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업무 혁신을 만들어가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SKT, 초경량 모델 ‘갤럭시 퀴텀7’ 선보

두께 6.9mm, 무게 179g

SK텔레콤은 25일 자사 전용 갤럭시 모델인 ‘갤럭시 퀴텀7’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퀴텀7은 퀴텀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모델이다. 두께는 6.9mm, 무게 179g으로 휴대성을 높였다. 특히 AI 기능과 45W 고속충전 지원 등 실용적인 기능이 대거 탑재됐다. AI 기능에서는 음성 파일의 텍스트 변환과 번역을 지원하는 ‘보이스 트랜스크립트 어시스트’ 기능도 추가됐다.

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손가락이나 펜으로 원을 그려 검색할 수 있는 구글 ‘서클 투 서치’ 기능도 있다. 모션 포토로 촬영한 사진에서 최적의 표정을 골라주는 베스트 페이스, 사진 요소를 손쉽게 지우고 채울 수 있는 AI 지우개 등이 탑재됐다. 카메라 기능도 어두운 환경에서 선명도를 높였다. 갤럭시 A 시리즈 최초로 저조도 노이즈 감소 기능을 장착했다. 방수·방진 등급은 최신 플래그십 모델



SK텔레콤이 자사 전용 모델 갤럭시 퀴텀7을 출시했다. /SK텔레콤

과 동일한 수준인 IP68로 강화했다.

갤럭시 퀴텀7은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과 전국 T월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색상은 어썸 그레이·아이스블루·라일락 등 3종이다. 라일락 색상은 T다이렉트샵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신제품 3종 출고가는 71만7200원이다. 출시 기념 행사도 연다. 9월 7일까지 갤럭시 퀴텀7 구매 고객은 T우주 구독 상품 유튜브 프리미엄 2개월 이용권과 메가MGC커피 2잔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

T다이렉트샵에서는 9월 23일까지 선착순 1500명을 대상으로 3만원 상당의 네이퍼페이 포인트를 지급한다. /조민선 기자

컴투스

‘제우스: 오만의 신’

출격 전부터 흥행 예감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1위

컴투스의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제우스: 오만의 신’이 정식 출시 전 사전 다운로드만으로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1위에 올랐다.

컴투스는 에이버튼이 개발하고 자사가 퍼블리싱하는 ‘제우스: 오만의 신’이 지난 24일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한 당일 국내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1위를 기록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인기 게임 6위에 올랐다.

제우스: 오만의 신은 오는 26일 낮 12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세 차례 진행된 캐릭터명 선정 이벤트가 모두 조기 마감됐으며, 출시 일주일 전 진행된 ‘D-7개발자 라이브’에서도 이 용자들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게임은 그리스 신화를 재해석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8개 클래스와 다양한 경쟁·성장 콘텐츠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 모드를 활용한 편의 시스템도 적용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지난 24일 ‘바른 AI 디지털 생활’ 공모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한 성신여중의 ‘바다의보물’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헬로비전

LG헬로비전,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총 580편 작품 접수… 14편 수상

LG헬로비전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공지능(AI) 활용법 등을 위한 디지털 교육에 앞장선다.

LG헬로비전은 지난 24일 전국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바른 AI·디지털 생활 미디어 콘텐츠 창작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한 가운데 성북미디어문화마루에서 열렸다.

행사 취지는 청소년이 AI·디지털 역기

능의 위험성을 주체적으로 짚어보고, 올바른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특히 지난 1학기에 진행된 ‘바른 AI 디지털 생활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윤리 의식을 창작물로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동영상, 카드뉴스 및 만화, 포스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총 580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376편) 대비 54% 증가한 수치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입증했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공식성,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4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조민선 기자

LG U+, 생활밀착형 상품 ‘유독 픽’ 개편

AI 8종부터 식음료·쇼핑 혜택까지

LG유플러스가 구글 ‘제미나이 프로’ 등 인공지능(AI) 모델에 올리브영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 혜택을 다한 구독 상품을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구독 플랫폼 ‘유독’에서 생활 밀착형 상품 ‘유독 픽’을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유독 픽은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구글AI 프로 등을 생활 혜택과 함께 선택에 이용하는 상품이다. 구성은 매월 변경할 수 있다.

유독이 현재 보유한 AI 구독 상품은 총 10종이다. 학술·전문 검색 AI 라이너, 영상 편집 AI 키네마스터, 생성형 AI 제공 플랫폼 우수AI 등이다. 이중 AI 8종을 ‘유독 픽’ 상품의 추가 혜택으로 확대

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유독 픽’ 상품 가입 고객은 OTT, 구글 AI 프로 등 메인 서비스에 더해 8종의 특화 AI 중 하나를 추가 선택할 수 있다. 또 식음료, 쇼핑 중심의 혜택을 CGV 1+1 예매권,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 플러스 이용권 등을 추가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유튜브 프리미엄 픽 생활 혜택형’ 상품을 선택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과 함께 메가커피 2잔, 베스킨라빈스·파리바게뜨 할인 쿠폰, 올리브영·다이소 기프트카드, 스노우·카카오택시 플러스 등 생활 혜택 중 매월 원하는 구성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추가 금액 4000원을 지불하면 매월 CGV 1+1 영화 예매권 1매를 이용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